

# 증거성표지 및 관련 어휘 발달 양상: 자발적 산출과 입력언어의 분석

최영은\*, 이화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어 습득 아동의 증거성표지 습득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 아동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발적 산출의 양상을 검토하고, 어머니의 관련 입력 언어를 분석하였다. 특히, 만 2-3세에 주로 산출되는 증거성표지와 정보 출처 관련 어휘를 검토하였고, 어머니의 입력 언어에서 관련 표현들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입력언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와 유사한 일본 아동과 양육자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언어 간 입력 언어 차이에 따른 산출 양상도 비교, 분석하였다. 자발적 산출 분석 결과 직접 경험을 나타내는 표지 및 어휘의 사용이 간접 경험이나 보고의 표지보다 양육자와 아동 모두에게서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의 '대', '보다', '듣다'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양육자가 일본 양육자에 비해 어휘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형태소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제한된 자료들의 검토이나 이러한 결과는 증거성표지나 관련 어휘의 습득이 인식론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인식론적 상태에 따라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확실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와의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증거성표지(evidential), 정보 출처 어휘, 증거성표지의 발달, 언어 발달, 한국어 발달

증거성표지(evidential)는 화자가 정보를 얻은 방법 과 정보의 출처를 표시한 문법적 요소를 이른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H00013).

\* 이 논문 내용의 일부는 이화인의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도 실려 있음.

\* 교신저자: 최영은, E-mail: yochoi@cau.ac.kr

\* 연구를 도와준 천혜진, 최미혜, 방지은 학생과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신 영남대학교 이현진 교수님, 상지대학교 김미숙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khenval'd, 2004). 예를 들어, 화자가 '밖에 눈이 온대'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밖에 눈이 온다'는 정보 외에도 '대'라는 표지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보고를 통해 눈이 온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보가 '네'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달되었다면(예, '밖에 눈이 오네'), 청자는 화자가 현재 밖에 눈이 오고 있는 것을 직접 보면서 전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와 같이 정보를 직접 경험을 통해 얻었는지, 타인의 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습득하였는지, 또는 간접적 단서를 통해 추론하였는지(예, '밖에 눈이 오나봐')와 같은 정보의 출처와 습득 방식은 문장의 끝에 제시되는 문법적 형태소를 통해 전달되는데, 바로 이러한 표지들을 통틀어 증거성표지라 하는 것이다(송재목, 2009, 2011도 참조). 이와같이 문법화된 증거성표지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터키어, 일본어, 투유카어, 티베트어, 불가리아어 등으로, Aikhenval'd(2004)에 따르면 세계 언어의 1/4에 증거성표지체계가 있다고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는 이렇게 직접 경험의 증거성표지와 보고표지, 추측표지가 존재한다(송재목, 2011). 직접 경험표지는 화자가 발화 내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었음을 나타낸다(직접 보거나 들음. 혹은 화자의 내적 경험). 한국어의 '직접 경험'표지는 경험의 시기가 발화시점인지, 발화시점 이전인지에 따라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표지 '네'와 '과거의 직접 관찰'을 나타내는 표지 '더'로 나누어진다(송재목, 2007). 문장의 끝에 '더'를 사용했을 경우(예, '밖에 눈이 오더라'), 화자가 눈이 온다는 정보를 발화 시점 이전에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이고 '네'를 사용했을 때는(예, '밖에 눈이 오네')는 현재의 발화 시점, 발화 장소에서 직접 관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는 화자가 현재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화자가 직접 관찰하거나

간접적인 지식에 의존해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의미로 한국어의 보고 표지로 사용된다(송재목, 2011). 추측표지의 경우에는 '것 같다'와 'ㄴ가보다'를 포함하거나(김동욱, 2000), 'ㄴ가/았나/나보-'를 증거성표지에서 추측표지로 분석하기도 한다(김경애, 2002; 송경안, 이기갑, 2008; 이기갑, 2006, 송재목, 2009는 '겠'을 포함하기도 함). 요약하면, 이렇듯 한국어에서는 '타인에 의한 보고'를 표시하는 '대(-다고 하다는 축약형)', '단서를 통한 추론, 추측'을 표시하는 '것 같다'와 '나봐', '현재의 직접 경험'을 의미하는 '네', '과거의 직접 경험'을 의미하는 '더' 등을 통해 간접 보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의 정보출처를 표시한다.

이러한 정보 출처는 증거성표지 외에도 어휘를 통해 표시되기도 한다. 주로 동사와 같은 어휘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예를 들어, "밖에 눈이 오는 걸 봤어."라고 하거나 "눈이 온다고 들었어(했어)." "눈이 온다고 생각해."와 같이 '보다', '듣다', '말하다',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그 예이다. 문법화된 증거성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언어들에서는 정보 출처가 이러한 동사들을 통해 선택적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증거성표지가 발달된 한국어나 일본어, 터키어 등의 언어에서는 증거성표지의 사용은 선택적이기 보다 의무적이고, 어휘의 사용은 오히려 선택적이다(Aikhenval'd, 2004; Papafragou, Li, Choi, & Han, 2007).

이러한 증거성표지나 정보 출처 관련 어휘는 전달하고 있는 정보 습득 방식과 출처에 따라 개인적 경험(personal experience), 직접 관찰(direct perception), 타인의 보고(reported or hearsay), 추론(inference), 추측(conjecture)등의 범주로 나뉜다(Davis, Potts, & Speas, 2007; Speas, 2004;

Willett, 1988).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은 상대적으로 달리 전달하는 정보의 확실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다 확실한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약화되는 순서로 증거적 위계(evidential hierarchy)를 이룬다.

개인적 경험 >>

직접적 증거 >>

간접적 증거 >>

타인의 보고

개인적 경험은 화자 본인의 내적 경험을 뜻하는데 ‘아프다’, ‘따뜻하다’와 같이 화자 본인의 내적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증거성표지 범주 중 가장 확실한 정보이다. 직접적 증거는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을 뜻하며 이는 화자 본인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단서를 통해 추론한 것이나 타인에게 전해 들은 것 보다는 더 확실하지만 개인적 경험에 의해 얻은 정보보다는 덜 확실하다. 간접적 증거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타인의 보고 보다 더 확실한 정보이지만 일부의 정보만으로 추측된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증거보다는 덜 확실하다(최영은, 이화인, 장나영, 2010).

성인들은 여러 정보 중 확실한 것을 골라야 할 때 증거적 위계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은과 Kaufman(2009)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범인 찾기 과제(detective game)’를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예를 들어, 사탕가게에 도둑이 든 상황을 제시하고 두 명의 증인이 각각 ‘도둑이 A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 ‘도둑이 B를 훔쳤다고 들었다’와 같이 서로 다른 정보 출처(보다, 듣다)를 사용하여 도둑이 훔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 때, 실험

참가자는 두 증언을 듣고 도둑이 어떤 물건을 훔쳤을지 선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참가자가 ‘보았다(saw)’는 어휘를 사용한 증인의 말에 따라 도둑이 A를 훔쳤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최영은, 이화인과 장나영(2010)의 한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화자의 진술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확실성을 비교, 판단할 때 직접 경험(‘-어’로 끝난 문장들이었음)을 간접 추론(‘것 같다’나 ‘나봐’로 끝난 문장들)이나 타인보고(‘대’로 끝난 문장들) 보다 더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거성표지는 정보 출처를 청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로운 정보를 취합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다 신뢰로운 정보원이 간접적 경로로 얻어진 것 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것임을 인식론적으로 이해하면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 그 출처에 따라 정보 확실성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증거성표지의 습득은 정보 원천 탐지 능력이라든가, 지식 형성 기반 이해, 타인의 증언 신뢰와 같은 개념 발달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 여러 인지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최영은, 이화인, 장나영, 2010; Aksu-Koc, Ogel-Balaban, & Alp, 2009; Aydin & Ceci, 2009; Matsui & Fitneva, 2009; Jaswal, Croft, Setia, & Cole, 2010; Papafragou, et al., 2007) 언어 발달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지 영역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증거성표지들은 언제 습득되기 시작할까? 특히, 한국어에서 증거성표지들이 습득, 사용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한국어에서의 증거성표지 습득 연구는 매우 최근에만 시작되었다(최영은, 장

나영, 이화인, 2011 참조). 자녀의 발화를 일기로 기록하여 분석한 Lee(2009)의 자발적 발화 분석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법의 사용 예와 출현 시기를 간략히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네’, ‘대’, ‘나봐’, ‘것 같다’의 산출 시기는 아래의 (1a)-(1d)와 같다(SK, CK, YJ는 아동의 이름. 괄호 안의 숫자는 생후 년: 개월. 일).

(1)

a. ‘네’의 산출

SK (2:3.11) 쪼끔 있네

CK (2:1.16) 여기 불 켜네(전등을 보면서)

YJ (1:2.4) 엄마 왔네

b. ‘나봐’의 산출

CK (2:3.1) 또 자**나봐**(아빠가 즐고 있는 모습을 보며)

c. ‘것 같다’의 산출

CK (4:7.17) (아이가 ‘누가 가져갔어?’라고 묻자 아빠가 ‘몰라’라고 대답한 후) 엄마인 **것 같아**. 준규는 엄마인 **것 같아**.

d. ‘대’의 산출

CK (2:2.25) 아빠 또 학교간**대**(아빠가 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YJ (2:3.1) 그 영감이**래요**

이 자료를 보면 ‘것 같다’를 제외한 다른 증거성표지들은 대체로 2세 초-중반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ee(2009)의 자료는 증거성표지 습득이 연구의 주목적이 아니었고, 근거로 한 자료가 녹음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일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다

양한 증거성표지의 정확한 출현 시기와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연령, 표지들의 습득 순서와 같은 체계적인 자료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매우 컸다.

최근에는 자발적 산출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산출을 유도하여 산출 시기를 검토한 연구도 있다. Papafragou 등(2007)은 3-5세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어’와 ‘대’의 산출을 유도하였다. ‘어’ 산출 실험에서는 실험자(인형)가 참가자와 어제 한 일에 대하여 들은 뒤, 참가자가 어제 했다고 한 일을 제멋대로 말한다. 예를 들어, 참가 아동이 “나는 어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라고 말했다면 인형은 “OO가 어제 아이스크림을 발로 찼대!”라고 말한다. 참가 아동은 인형의 말을 바로잡도록 하였는데, 이 때 ‘어’를 사용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 3-5세의 아동 대부분이 인형이 ‘대’를 사용하여 한 말을 ‘어’를 사용하여 바로 잡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대’ 산출 실험에서는 인형이 하는 말을 들은 아동이 실험자에게 인형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타인의 보고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할 때 ‘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인형이 “나 어제 친구랑 싸웠어.”와 같이 말하면 아동은 실험자에게 “(인형이) 어제 친구랑 싸웠대요.”와 같이 ‘대’를 사용하여 인형의 말을 전달하여야 한다. ‘대’산출 실험 결과 3세는 57%, 4세는 74%, 5세는 85%가 ‘대’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여, ‘대’의 산출은 4세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출과 ‘것 같다’의 산출을 실험적으로 유도하였던 최영은, 장나영과 이화인(2011)의 연구에서도 ‘대’산출은 Papafragou 등(2007)의 연구와 유사하게 관찰하였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인형을 사용하는 대신 두 명의 실험자 사이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한 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른 실험자

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4세의 '대' 산출이 5-6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부터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것 같다' 산출의 경우 4-5세가 되어야 비교적 안정적으로 산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적 산출 연구 결과들은 비교적 체계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 산출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안정적 산출시기가 1-2년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적 산출을 유도하였을 때 자료 수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어린 아동일수록 상황에 따라 발화의 양에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낯선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발화해야 할 경우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금까지 보고된 자발적 산출자료는 Lee(2009)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험적 산출 결과와의 차이가 특정 아동의 발화 유형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최초 출현시기와 무관하게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와 표지 별 습득 순서, 사용 빈도 등의 자료가 부재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기 자료가 아니라 직접 녹음하여 전사된 아동의 자발적 발화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증거성표지가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각 표지가 산출되는 맥락과 발달 초기에 사용된 빈도, 표지별 산출 순서,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된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성표지의 산출 발달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녹음 자료에 함께 전사되어 기록된 어머니의 발화 자료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아동 발달 초기에 어머니가 아동에게 제시하는 각 증거성표지의 유형과 빈도를 살펴 고 어머니의 입력 언어가 아동의 산출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산출 자료 분석에 있어서 한국 어머니-아동의 대화 자료만이 아니라 일본 어머니-아동의 대화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두 언어에서 아동의 증거성표지 산출 시기와 순서 및 어머니의 입력 언어 양상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일본어에는 한국어와 유사하게 보고표지로 사용되는 'tte(한국어의 '대'에 상응)'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어에서처럼 '보다'와 '듣다', '생각하다' 등 정보의 출처를 전달하는 데 추가적으로 동사가 활용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 아동의 경우 증거성표지로 전달된 진술들 사이의 정보 확실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때 한국 아동에 비해 보다 어린 연령(만 3-4세 경)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tsui, Yamamoto, & McCagg, 2006). 반면에 한국 아동들의 경우에는 증거성표지로 정보 습득 방식이나 출처가 전달되었을 때에는 5-6세가 되어도 정보 확실성 판단을 잘 못하였으나 동사로 전달되었을 때 이러한 정보 확실성 판단 능력이 3-4세경부터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은, 이화인, 장나영, 2010). Matsui 등(2006)은 한 어머니-아동의 자발화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발달 초기 입력언어에서 증거성 문법표지가 어휘보다 빈도가 높으며, 양육자의 증거성표지 사용과 아동의 사용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여 입력언어가 일본어 습득 아동의 이른 정보확실성 판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Choi와 Gopnik(1995)도 한국어 입력언어가 영어와는 달리 동사를 단독으로 제시하거나 운율적으로 강조되는 문장의 끝에 동사가 제시되게 하므로 다른 언어 습득 아동들에 비해 한국어 습득 아동들이 동사 습득이 빠르다고 제안하였다(Tardif, 1996도 참조). 그러나 이에 반해 어휘 습득에 있어서 입력언어의 역할은 간접적이며 부수적일 뿐이

라는 제안들도 있다(Gleitman, 1990).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가 실제 맥락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기(예, 아이가 입안에 콩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콩 삼켜’라고 한다거나 문을 열면서 ‘이건 문이야’라고 하기보다는 ‘뭘하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Hoff, 2009 참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Choi와 Gopnik(1995)의 연구 결과와 달리 한국어 습득 아동들의 동사 습득 정도가 다른 언어권의 아동들과 다르지 않다는 보고들도 있어 입력언어가 어휘 습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결과들도 제시되었다(Au, Dapretto, & Song, 1994, Kim, McGregor, & Thompson, 2000).

이와 같이 어휘습득에 있어서 입력언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가설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제한된 자료들이지만 두 언어에서의 어머니의 입력 언어 자료에서 제공된 증거성표지와 정보 출처 관련 어휘의 사용 정도를 비교하여 일본 아동과 한국 아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발적 산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증거성표지와 관련 어휘들의 발달 양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입력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입력 언어가 증거성표지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 연구 1: 한국어 아동 및 입력 자료 분석

###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한국어의 자발적 산출 자료 분석은 양육자와 아동의 놀이 상황을 녹음한 것을 전사한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첫 번째 아동(여아)과 양육자의 자료는 생후 2년 0개월에서 3년 2개월에 걸쳐 총 36회 녹음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아동(남아)과 양육자의 자료는 생후 2년 0개월에서 2년 1개월에 녹음된 4개의 자료였다\*\*. 두 번째 아동의 자료는 4회기 자료밖에 없어 매우 제한적이어서 분석은 주로 첫 번째 아동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각 회기의 녹음 자료는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녹음된 것이 전사된 자료였다(아동 1의 자료는 녹음 길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더 길 수도 있음). 녹음 당시 아동과 양육자(두 경우 모두 어머니였음)는 대체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거나 사진을 보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림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두 아동의 자료에서 각 녹음 회기 당 양육자와 아동이 각각 ‘네’, ‘더’, ‘나봐’, ‘대’의 증거성표지와 ‘나봐’와 유사하게 추측된 정보를 표시하는 ‘것 같다’의 사용 빈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보다’, ‘듣다’와 같이 정보의 출처를 표현하는 어휘의 사용 빈도도 측정, 기록하였다. 어휘의 경우 추가적으로 ‘(말)하다(-라 (말)하다, -라고 그러다 포함)’와 같이 타인이 말해 준 것을 전달하는 동사의 사용도 검토하였다. 실제로 타인에게 정보 전달을 받을 경우, ‘-라고 듣다/들었다’ 라는 표현보다 ‘-라고 하다, 그러다(영어에서는 tell)’가 성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빈도 기록 시 각 문법 표지와 어휘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여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빈도를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더’는 ‘집에 가던데’와 같이 ‘더’가 과

\* 영남대학교 이현진교수의 자료로 상지대학교 김미숙 교수께서 공유하셨습니다.

\*\* 자료수집 목적이 영아기 발화의 음성학적 특성을 살피는 것이어서 2년1개월에서 자료가 완료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실제 해당 연령기간의 어휘 사용, 입력언어 분석에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였음.

거의 직접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었음을 표시하였을 때를 포함하였고, ‘나봐’의 경우도 ‘작은가봐’와 같이 어떤 단서를 바탕으로 추측의 의미로 활용되어 쓰였을 때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대’의 표지 빈도에는 ‘-다고 해’의 음운론적 축약형으로 앞부분의 문장에 따라 ‘-라고 해’(‘래), ‘-자고 해’(‘재) 등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므로(송재목, 2011) 이러한 형태들도 ‘대’분류에 포함시켜 기록하였다. ‘대’표지의 경우에는 맥락을 통해 분명하게 제 삼자의 정보를 보고, 전달한 경우와 보고하고 있는 정보를 얻게 된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분리하여 기록하였다. ‘보다’의 경우에도 직접 눈으로 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고, 단순히 아동이 어머니의(혹은 어머니가 아동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기록하였다.

한국 아동의 자료는 두 명의 분석자가 먼저 전체 자료 중 2개의 발화 자료를 각각 분석한 후 분석자 간의 회기별, 표지/어휘별 빈도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 협의를 거친 뒤 나머지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각각 21개와 14개). 두 발화 자료의 분석자 사이에 회기 별 빈도 평균 일치도는 90.8%였다.

## 연구 결과

**증거성표지 산출 분석 결과.** 표 1에 아동 별로 정보 출처에 대한 어휘와 증거성표지를 사용한 빈도가 요약, 제시되어 있다. 위에 설명하였듯이 표 1에서 ‘보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보다(경험)는 정보를 얻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포함하였고, 보다(주의)는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

해 사용된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대’의 경우도 그 출처가 맥락에서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를 분리하여 기록하였다. 먼저, 문법적 형태소인 증거성표지의 산출 빈도와 양상, 그 사용과 맥락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동 1의 경우, 양육자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증거성표지는 현재의 직접 경험을 표시하는 ‘네’였다. 이러한 양상은 아동 2의 양육자에게서도 관찰되어 가장 빈도가 높게 사용된 표지는 ‘네’였다. 아동 1에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표지는 ‘것 같다’(147회), ‘대’(90회, 불확실한 경우 제외), ‘더’(71회)였고, ‘나봐’(48회)의 사용빈도가 가장 낮았다. 아동 2의 경우 전체 자료가 매우 작아 전반적으로 산출 빈도도 낮았는데, ‘대’(3회)와 ‘나봐’(2회)를 제외하고 다른 표지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두 자료에서 모두 ‘네’와 다른 표지들과의 빈도 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를 보면, 증거성표지의 경우 어머니 입력 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현재의 직접 경험의 표지였고, 그 다음으로 간접 추론, 간접 보고, 과거의 직접 경험 전달의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아동 1의 산출양상은 양육자의 증거성표지 산출 빈도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대->것 같다->더->나봐). 그러나 ‘대’와 ‘것 같다’의 산출 빈도는 양육자와 달라서 아동 1의 ‘대’(64회) 산출은 ‘것 같다’(23회)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동 2는 ‘대’와 ‘것 같다’외의 산출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아동이 2세초기 1개월 동안의 기록인 것을 참조하면, 아동 1에서와 같이 장기간의 관찰이 가능하였다면 양육자와 유사한 산출 빈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1. 두 아동의 정보출처 어휘 및 증거성표지 사용 빈도(측정된 시기의 아동의 생활연령)

측정 표지 및 어휘	아동1 (여아, 2:0-3:2)		아동2 (남아, 2:0-2:1)		
	양육자	아동	양육자	아동	
	증거성표지	네	1377	117	27
	더	71	16	0	0
	대(보고)	90	64	3	2
	대(불확실)	31	4	2	0
	것 같다	147	23	0	1
	나봐	48	10	2	0
어휘	<b>보다</b> (경험)	289	95	2	0
	보다(주의)	112	79	10	28
	듣다(청각)	15	3	4	0
	<b>(말)하다</b>	193	15	2	0

표 2. 아동 1의 정보 출처 어휘 및 증거성표지의 최초 출현시기와 가장 많이 사용한 시기 및 횟수

측정 표지 및 어휘	최초출현시기	가장 많이 사용한 횟수	가장 빈번히 사용한 시기	
증거성표지	네	2:0	13	2:5
	더	2:4	9	2:9
	대(보고)	2:0	10	2:9
	것 같다	2:2	6	3:0
	나봐	2:9	7	2:10
어휘	<b>보다</b> (경험)	2:2	13	3:0
	보다(주의)	2:2	11	2:9
	듣다(청각)	2:1	2	2:9
	<b>(말)하다</b>	2:2	3	2:8

표 2에는 아동 1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표지와 어휘의 최초출현시기, 가장 빈번히 사용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요약, 제시하였다. 빈도와 더불어 각 표지가 최초 산출된 시기와 빈번히 관찰된 시기를

살펴보면(표 2 참조), ‘네’와 ‘대’ 표지는 2년 0개월에 최초로 산출되기 시작하는데 반해 ‘것 같다’는 2년 2개월, ‘더’는 2년 4개월, ‘나봐’는 2년 9개월로 산출이 최초 발달 시기의 순서도(네, 대->것 같다



->더->나봐) 사용 빈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각 표지가 가장 빈번히 사용된 시기를 보면, ‘대’의 경우 ‘네’ 보다 늦은 2년9개월 경에 이르러서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것 같다’도 최초 출현시기보다 훨씬 지난 3세경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생산적 산출이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최초 출현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던 발달 시기의 경우, ‘네’(2년 5개월)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성표지는 대체로 2세 말, 3세초에 이르러야 빈번한 사용이 출현하는 것으로 직접 경험표지에 비해 간접 추론, 간접 보고 등은 그 발달이 4-7개월 정도 늦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에서 좀 더 상세히 아동이 각 표지를 사용한 맥락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2a-b)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 1의 ‘네’의 최초 사용(2a)은 현재 목격 중인 현상에 대한 확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 1의 ‘네’ 사용이 빈번해지는 2년 5개월 무렵에는(아래 2b 참조) 목격 중인 것에 대해 진술할 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에 요약되어 있듯이 이러한 ‘네’의 사용은 양육자와 아동 모두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예들을 보면, 아동이 단순히 어머니가 사용한 표지들을 단순반복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게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a-b). ‘네’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용맥락 (2:0) 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때(2:5)의 맥락.**

(2a). (아동 1. 생후 2년 0개월 20일)  
 양육자: 이건 뭐니, 지원아, 이거하고.  
 아동: 있네.  
 양육자: 있네. 요기다. 이거하고. 응-응. 그게 어

떻다고?

아동: 또꼬빠  
 양육자: 응. 또까비~ 똑같애. 똑같애?  
 아동: 응.

(2b). (아동 1. 생후 2년 5개월 22일)

양육자: 어, 그 다음에 지원이가 뭐를 하니?  
 아동: 커피 타고 있네.  
 양육자: 어, 커피타고 있네. 정말. 그러구 애는 누군데?  
 아동: 토끼가 케키 짤라 주네.

아래의 (3a-b)에는 아동 1의 산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의 산출을 보인 ‘대’가 최초로 출현하였을 때와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때의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2년 0개월 무렵, 최초로 출현한 ‘대’의 경우(3a)에는 출처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동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정보를 양육자에게 전달하려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던 2년 9개월경(3b)에는 누군가(제 3자나 다른 출처)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을 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3a-b). ‘대’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용맥락 (2:0) 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때(2:9)의 맥락.**

(3a). (아동 1. 생후 2년 0개월 20일)  
 양육자: 주사바늘 이네. 요건 어디있니? 진이야.  
 이건 어디 있니? 이 그림. 찾아봐.  
 아동: 요기.  
 양육자: 요기.  
 아동: 아빠 요기 있대.  
 양육자: 응. 아빠 고기 있대?  
 아동: 응.

(3b). (아동 1. 생후 2년 9개월 10일)

아동: 운동하면.

양육자: 응

아동: 힘이 세진대.

양육자: 힘이 세진대?

아동: 뽀뽀이처럼 커진대.

아동 1이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한 표지는 ‘것 같다’였는데, 그 사용 맥락의 예는 아래 (4a-b)와 같다. 최초로 출현한 2년2개월(4a)에서의 사용을 보면 정확히 어떤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아동이 사진 또는 그림과 같은 자극을 보면서 기린이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추론하고 있고, 이를 어머니에게 추론한 정보로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빈번하게 ‘것 같다’가 사용된 3세경의 자료를 보면 대상 물체(먹을 것으로 보임)의 모양이 다른 것과 닮았다고 추측한 정보를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Lee(2009)에서도 자녀의 발화를 일기로 기록한 자료에서 ‘것 같다’의 산출이 관찰,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 처음 관찰된 ‘것 같다’의 산출 시기는 4세 경 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현 발화 자료의 분석 결과는 실제 ‘것 같다’의 산출도 매우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고 있으며 그 빈도도 매우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4a-b). ‘것 같다’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용맥락(2:2) 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때(3:0)의 맥락.**

(4a). (아동 1, 생후 2년 2개월 14일)

양육자: 어디 물고기 있어? 기린이래니까 무슨 물고기야.

아동: 물고기.

양육자: 왜 그게 물고기인데?

아동: 물고기 같아.

양육자: 물고기 같애?

아동: 응.

(4b). (아동 1, 생후 3년 0개월 17일)

양육자: 빨간 게 더 맛있어. 빼서 하나 줘 볼까? 응.

아동: 아니 요깃는 거. 큰 거. 달뜬 거 같아.

양육자: 달땡이 같애? 맛있지?

아동: 젤리 \*\*\*.

양육자: 응?

아동: 젤리 같애.

양육자: 그래?

아동: 응.

아동 1과 어머니가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한 과거 직접 경험의 표지인 ‘더’의 사용 예는 아래 (5a-b)와 같다. 최초로 사용된 ‘더’는(아래 5a) 맛이 시었던 경험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는 글자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동의 ‘더’사용이 명확하지는 않다. 반면에 빈번한 산출을 보인 2년9개월 무렵의 아동의 ‘더’사용은 직접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더’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히 볼 수 있다.

**(5a-b). ‘더’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용맥락(2:4) 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때(2:9)의 맥락.**

(5a). (아동 1, 생후 2년 4개월 14일)

양육자: 응. 꺼꾸로 됐지? 왜냐하면 이거는 ‘아’ 소리가 나고, 이거는 ‘어’ 소리. ‘엄마’ 이거를 요렇게 하면 ‘엄마’가 되는거야.

아동: 응. 아이 시드라. 아이 시지?

양육자: 뭐해, 지원이?

양육자: 그래요? 네~ 칭주언니 집이 어디지요?

아동: 글썽요. 오! 그때 서울.

(5b). (아동 1, 생후 2년 9개월 25일)

아동: 신게 뵈더니 크더래.

양육자: 뭐라구?

아동: 키

양육자: 뭐가?

아동: 양말이

양육자: 아, 신어뵈더니 크더라구?

아동: 응.

끝으로, ‘나뵈’의 사용 맥락의 예는 (6a-b)에 제시되어 있다. ‘나뵈, ㄴ가뵈’의 경우 최초 출현과 빈번한 사용의 시기가 1개월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는데, 표지를 사용하는 맥락을 보면 최초 출현부터 매우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다.

**(6a-b). ‘-나/ㄴ가 뵈’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용 맥락(2:9)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때(2:10)의 맥락.**

(6a). (아동 1, 생후 2년 9개월 25일)

양육자: 에이, 발가락 더럽네.

아동: 목욕해야 돼, 내일

양육자: 응.

아동: 엄마!

양육자: 응?

아동: 오늘 놀이터 가서 그런**가뵈**.

(6b). (아동 1, 생후 2년 10개월 22일)

양육자: 근데, 동그라미 나라는 어디로 갔어요?

아동: 칭, 그때 칭주이모~ 칭주언니, 칭주언니, 칭, 칭주, 칭주언니, 칭주언니한테, 칭주, 칭주 언니 집에 놓고 왔**나뵈**요.

**정보 출처 어휘 산출 분석 결과.** 이제, 정보 출처를 표시하는 어휘의 산출 양상, 사용과 맥락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동 1의 경우, 시각적으로 직접 경험하였음을 의미하는 ‘보다’의 사용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다’를 표시하는 ‘(말)하다’의 사용보다 월등히 많았다. 아동 2의 경우도 ‘보다’는 2회 관찰되었으나 ‘(말)하다’는 그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양육자와 아동이 사용한 ‘듣다’의 경우에는 실제 청각적 경험(예, 소리가 들리다, 어떤 소리를 듣다)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제 3자로부터 정보를 얻었음을 표시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았다(아래 7 참조).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 받았음을 표시하는 데는 ‘-고(말)하다’, ‘-고 그러다’의 어휘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를 끌기 위해 ‘보다’가 사용된 예는 아래의 (8)에서 볼 수 있는데, 무언가를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영어에서 ‘Look’과 같이 상대방(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이는 정보 출처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아동 2의 경우에는 직접 경험의 표지로서의 ‘보다’보다는 주의를 환기하고 끄는데 쓰인 ‘보다’ 산출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것은 녹음 당시 상황(놀이 상황)에서 각자의 활동에 서로의 주의를 끄는 것이 빈번하였던 데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7). ‘듣다’(아동 1, 생후 3년 2개월)

아동: 엄마 좀 크게 해 목소리가 안 **들려**.

양육자: 뭐를?

아동: 텔레비

양육자: 그랬어?

(8). '보다'가 주의를 끌기 위해 쓰인 경우

(아동 1, 생후 2년 1개월)

아동: 불 켜줘

양육자: 켜어.

아동: 안 켜져, **봐봐**. 엄마 안 켜져.

정보 출처 어휘의 입력 언어 빈도와 아동 산출 빈도는 문법적 형태소인 증거성표지의 산출 양상과 매우 유사하였다(표 1 참조). 즉, 직접 경험의 표시(보다)가 간접 보고((말)하다)보다 그 사용 빈도가 높았다. 양육자의 경우, '보다'를 289회, '(말)하다'를 193회 사용하여 직접 경험 표시의 어휘가 간접 보고보다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증거성표지의 직접 경험 표시 '네'(1377회)와 '대'(90회)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동 1의 경우 '보다'를 95회, '(말)하다'를 15회 사용하여 직접 경험의 어휘 빈도가 훨씬 높았는데, '보다'의 경우는 증거성표지 '네(117회)'의 사용 빈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흥미로웠다.

'보다'와 '(말)하다'의 두 동사의 경우 최초 산출 출현 시기나 생산적 사용 시기(표 2 참조)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와 '(말)하다' 모두 2년 2개월에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년 8개월에서 3년 0개월 무렵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다'가 최초 출현했을 때의 사용 맥락(9a)과 빈번한 시기의 맥락(9b)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최초 사용의 예를 보면 무언가(이후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백화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를 보았음을 아동이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아동이 3년 무렵이 되었을 때의 '보다'는 어머니는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아동이 텔레

비전을 통해 보았음을 구분하여 세련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a-b). '보다(직접 경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용 맥락(2:2)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때(3:0)의 맥락.

(9a). (아동 1, 생후 2년 2개월 29일)

양육자: 야, 지원아 우리 텔레비 보자, 우리. 텔레비 많이 나오네.

아동: \*\*\*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양육자: 응?

아동: 어어. 배콤 이야기 **봤다**.

양육자: 오오. 배콤 어제 **봤어**?

아동: 네.

(9b). (아동 1, 생후 3년 0개월 17일)

아동: 사고, 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건너 가면, 차 이렇게 가면, 우리 아파트 가면, 사고 나 갖구 사람이 죽으지. 요전에 차에서 어떤 여자가 운전하는데 멍멍이가 막 걸어, 기어 가 갖구 얼어 죽었지-. 멍멍이-.

양육자: 그랬어? 언제-?

아동: 엄마 못 **봤**지. 자는 중에.

양육자: 응, 못 **봤**는데.

아동: 난 **봤**다-.

양육자: 어디서 **봤**는데?

아동: 어어, 텔레비.

'-고 (말)하다/그러다'의 최초 사용 맥락과 빈번한 시기의 사용 예는 아래 (10a-b)에 제시되어 있다. 최초 출현하였을 때에는 '-고'라는 형태소는 누락되어 있고, 자신이 한 말을 아빠에게 전해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0a). 2년 8개월 무렵에는 ‘-라고 그러다’라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생님에게 들은 말을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10b).

**(10a-b). ‘(말)하다(정보 전달)’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용맥락(2:2)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2:8)의 맥락.**

(10a). (아동 1, 생후 2년 2개월 14일)  
 아동: 내일.  
 양육자: 내일?  
 아동: 내일 아빠 째(아동별칭) 주세요-해.  
 양육자: 응. 째 주세요-한다구?  
 아동: 네.  
 양육자: 그럼 째이가 아빠 드릴거야?  
 아동: 네.

(10b). (아동 1, 생후 2년 8개월 13일)  
 아동: 선생님, 인제 가지말라구 그랬다.  
 양육자: 어딜 가지말라구 그랬어?  
 아동: 놀이방.

**자발적 산출과 입력 언어 관계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양육자의 입력 언어와 아동의 증거성표지 및 어휘 산출 빈도가 관련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아동 자료에서 각 녹음 회기별(총 36회기) 양육자와 아동의 표지 및 어휘 사용 빈도 간에 상관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더’ 사용( $r(36) = .38, p < .05$ ), ‘대’ 사용( $r(36) = .48, p < .01$ ), ‘것 같다’ 사용( $r(36) = .59, p < .001$ ), ‘나봐’ 사용( $r(36) = .52, p < .01$ ), 그리고 ‘듣다’ 사용( $r(36) = .44, p < .01$ )은 동일 표지/어휘의 아동의 산출

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네’, ‘보다’, ‘(말)하다’의 경우에는 양육자와 아동의 사용 빈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s < .27, ps > .11$ ).

양육자의 산출 빈도가 아동의 산출 빈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이 유의한 ‘더’, ‘대’, ‘것 같다’, ‘나봐’, ‘듣다’에서 양육자의 산출 빈도를 예측 값으로, 아동의 산출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회귀식이 유의하였다. 먼저 ‘더’의 경우 양육자의 산출 빈도가 아동 산출 빈도에 15%의 설명력이 있었고( $\beta = .38, t = 2.4, p < .05$ ), ‘대’는 23%( $\beta = .48, t = 3.2, p < .01$ ), ‘것 같다’는 35%( $\beta = .59, t = 4.2, p < .001$ ), ‘나봐’는 27%( $\beta = .52, t = 3.6, p < .01$ ), ‘듣다’는 19%( $\beta = .44, t = 2.8, p < .01$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 요약 및 논의**

연구 1에서는 두 명의 한국 아동, 특히 자료가 풍부하였던(36회기 자료) 아동 1과 양육자의 자발적 산출자료를 통해 초기 언어 습득시기에 증거성표지와 정보 출처를 표현하는 어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검토하고 초기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증거성표지의 경우 양육자가 현재의 직접 경험 표지인 ‘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간접 추론의 ‘것 같다’와 간접 보고의 ‘대’, 또 간접 추론의 ‘나봐’, 과거의 직접 경험 표지인 ‘더’의 순서로 사용빈도가 나타났다. 아동의 증거성표지 산출 양상도 양육자와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아동의 경우 ‘네’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증거성표지는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산출 발달 양상을 보면 ‘네’와 ‘대’의 표지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세 초기 경에 등장하였으

나 실제로 ‘네’를 제외한 다른 표지들은 2세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생산적이고 그 의미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출처를 표시하는 어휘의 경우 ‘보다’와 ‘듣다’, ‘(말)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양육자와 아동 모두 ‘보다’의 사용은 상당히 많았으나 ‘듣다’와 ‘(말)하다’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아동의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다’는 의미로 ‘듣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만약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것을 이야기해야 했을 때에는 ‘OO가 그러는데’라고 하거나 ‘OO가 말해줬는데’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증거성표지와 관련 어휘의 산출 시기는 산출 빈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는데, 직접 경험의 표지일수록 일찍 출현하고 빈번한 사용 시기도 간접 보고나 추론의 표지보다 대체로 이른 편이었다. 이러한 발달 양상은 아동의 언어 산출 발달이 인식론적으로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비록 산출 출현시기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Lee(2009)의 보고와 발달 양상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동1의 증거성표지 출현시기와 발달 양상은 증거성표지 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진 터키어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ksu-Koç은 3세에서 6세에 이르는 터키어 습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자발적 발화 자료와 산출 및 이해 실험을 통해 정보 원천 표현의 발달 양상을 연구,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에 따르면 자발적 발화 자료에서 직접 경험(-dI)과 물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mI)을 보고하는데 사용하는 증거성표지들은 1년6개월에서 2세 사이에 출현하기 시작한다(Aksu-Koç, 1988; Aksu-Koç, Ögel-Balaban, & Alp, 2009). 이에 비해서 타

인의 보고는 조금 늦은 2세에서 3세 사이 경 출현하여 타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조금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발달 순서와 최초 출현시기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가깝게 일치하여 증거성표지와 관련 어휘의 습득이 보편적 발달 양상을 따를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양육자와 아동의 증거성표지 및 정보 출처 어휘의 산출 빈도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양육자의 ‘더’, ‘대’, ‘것 같다’, ‘나봐’, ‘듣다’의 사용은 아동이 동일 표지와 어휘를 사용하는 정도를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증거성표지와 관련 어휘 산출에 입력 언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입력 언어가 아동의 산출을 유발하였는지, 그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상관과 회귀 분석의 결과는 두 요인간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동의 빈번한 산출이 어머니의 산출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나 제 3의 요인(예, 아동과 어머니가 공유하는 활동의 종류나 경험의 형태)에 의해 양측의 산출이 동시에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네’, ‘보다’, ‘말하다’의 경우에는 양육자의 사용 여부나 빈도와 아동 사용빈도가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상세히 제시한 사용 맥락, 예들을 보더라도 아동이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반복 모방하여 증거성표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론에서도 개괄하였듯이 입력언어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Choi & Gopnik, 1995, Tardif, 1996) 입력언어의 역할이 반드시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을 시사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Gleitman, 1990).

그러나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비록 두 아동에게는 하였으나 두 번째 아동의 경우 2세초기 1개월 간 4회기 녹음된 매우 제한적 자료여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 아동의 자료 분석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자발적 발화 자료들을 검토, 비교하여 증거성표지의 자발적 산출 발달 시기와 생산적 사용 시기 등이 보편적인지 추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 2: 한국어와 일본어 비교 분석

한국어 아동과 어머니의 산출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어 산출, 입력 언어 자료(Matsui, Yamamoto, & McCagg, 2006)의 검토를 통해 증거성표지와 정보 출처 어휘를 유사하나 조금 다르게 활용하는 두 언어에서의 산출 발달 양상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 연구 방법

일본어 자료는 아동의 발화자료 데이터베이스인 CHILDES(MacWhinney, 2000)의 아동(Tai)의 산출 자료를 참고 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관련 연구인 Matsui, Yamamoto,와 McCagg (2006)에서 이 아동과 어머니의 산출 분석 자료를 보고하여 한국어 자료와의 직접 비교 분석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Matsui, Yamamoto와 McCagg(2006)가 보고한 Tai의 자료는 75회기에 걸친 것으로 한국 아동의 자발적 발화 자료 35개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또한 한국어 발화 자료는 생후 2년 0개월부터 시작하는데 반해 Tai의 자료는 생후 1년 5개월부터 측정되어 더 이른 시기부터의 산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 시기를 최대한 동일하게 하고 산출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Tai의 산출 자료 중 한국 아동과 측정 시기가 맞지 않는 26개의 자료(1년 5개월에서 2년 0개월 이전까지의 자료)를 제외한 총 49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분석하여 한국 아동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CHILDES의 Tai자료는 CLA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 빈도를 분석하였다. 일본 아동과 양육자의 발화 자료에서는 'tte(대)', 'miru(보다)', 'kiku(듣다)'가 한국어의 발화 빈도와 비교되었다.

### 분석 결과

표 3에 세 가지 표현(대, 보다, 듣다)에 대한 한국 및 일본 아동과 양육자의 총 산출 빈도가 요약되어 있다. 두 자료 모두 아동이 생후 2년 0개월일 때부터 3년 2개월까지였을 때의 자료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표 3에서 제시된 '보다'의 빈도는 표 1에서의 분석과 달리 직접 경험만이 아니라 주의를 끄는데 사용된 '보다'의 빈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두 의미에 따라 빈도를 분리하지 않은 것은 일본어 연구에서 이 두 용례를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Matsui, Yamamoto, & McCagg 2006) 언어 간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 양육자의 세 표지 사용 빈도는 '대'와 '보다'의 차이에서 두드러진다. 한국 어머니가 '보다'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반면에 일본 어머니는 '대'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 검증 결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 = 1934) = 415.29, p < .001$ .

아동의 경우, '대' 산출은 한국 아동이 25.9%, 일본 아동이 19.7%, '듣다'는 한국 아동이 3.6%, 일본 아동이 4.2%, '보다'는 한국 아동이 70.4%, 일본

표 3. 한국, 일본 아동과 양육자의 '대', '듣다', '보다' 발화빈도(%)

측정 표지 및 어휘	한국(아동 1)		일본(Tai)	
	양육자	아동	양육자	아동
대(tte)	90(17.1)	64(25.9)	<b>972(69.0)</b>	28(19.7)
듣다(kiku)	34(6.5)	9(3.6)	32(2.3)	6(4.2)
보다(miru)	<b>401(76.4)</b>	174(70.4)	405(28.7)	108(76.1)

아동이 76.1%로 한국 아동의 '대'와 '듣다'의 산출이 일본 아동에 비해 조금 많았고, '보다'는 일본 아동의 산출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chi^2(2, N = 389) = 1.93, p = .38$ .

## 연구 2: 요약 및 논의

한국 양육자는 '보다'의 사용이 76.4%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본 양육자의 경우에는 '대'의 사용이 69%로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한국 아동은 양육자처럼 '보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전체 중 70.4%의 사용이 나타났으나, 일본 아동은 양육자와는 달리 한국 아동과 양육자처럼 '보다'를 76.1%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과 일본 아동의 '대' 사용이 비록 '보다'보다는 적었으나 각각 25.9%, 19.7%로 낮지 않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듣다'는 한국, 일본의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서 매우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Matsui 등(2006)은 일본어의 입력언어에서 증거성표지의 사용 빈도가 관련 어휘의 사용 빈도보다 월등히 높은 점이 일본어 습득 아동이 이른 시기(만3-4세)부터 증거성표지를 어휘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입력 언어의 차이는 한국 어머니와

대조적으로 나타나 이들이 제안한 증거성표지 이해 발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의 산출의 경우에는 한국어, 일본어 습득 아동 모두 유사한 표지의 사용 분포와 빈도를 보여 산출 발달에 있어서는 입력 언어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어와 일본어 양육자에서 나타난 입력 언어의 빈도 차이는 Matsui, Yamamoto과 McCagg (2006)와 최영은, 이화인과 장나영(2010)이 보고하였던 일본과 한국 아동의 정보 확실성 이해 발달 양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영은, 장나영, 이화인, 2012도 참조). 여기에서 정보 확실성 판단이란 특정 사실에 대해 두 진술자의 다른 제보(예, 도둑이 사과를 숨긴 곳은 빨간 통이야(인 걸 봤어). vs. 도둑이 사과를 숨긴 곳은 파란 통이래(이라고 들었어).)를 제공받았을 경우 어느 제보를 보다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비교, 결정하는 능력을 이른다. 이런 경우, 직접 경험이 간접 보고보다 확실한 정보임을 이해한다면 '-어'나 '봤어'와 같은 표지로 정보 출처가 직접 경험임을 제시하는 진술의 내용을 '대'나 '들었어'와 같은 정보 출처가 간접 보고임을 제시하는 진술의 내용보다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일본 3-5세 아동의 경우 정보 출처가 증거성표지 '대'로 된 경우에 어



휘인 ‘보다/듣다’로 표시된 경우보다 정보 확실성 판단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tsui, Yamamoto, & McCagg, 2006). 그러나 한국의 3-5세 아동은 이와 반대되는 양상, 즉, 어휘로 정보 출처가 표시되었을 때 증거성표지로 출처가 표시된 경우보다 정보 확실성 판단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아동의 자발적 산출에서는 두 언어권 아동 모두 ‘대’사용보다는 ‘보다’의 사용이 높았으나 입력 언어의 경우 한국 어머니의 ‘보다’ 사용이 ‘대’사용보다 높고, 일본 어머니는 이에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 만 3-5세 경 발달하는 정보 확실성 판단 능력에 다르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일본 아동의 ‘보다’사용에서 어느 정도가 시각적 경험의 의미로 쓰였는지, 또 어느 정도가 주의를 끄는 데 사용되었는지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경험으로서의 보기로 사용한 ‘보다’의 비율이 매우 낮을 경우, 정확한 의미를 바탕으로 재분석하면 아동 산출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표지가 ‘대’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를 이해하는 연구자가 없어 사용된 의미에 따른 분리 측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의 증거성표지와 정보 출처 관련 어휘의 산출과 발달을 자발적 산출 자료와 입력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입력 언어와 자발적 산출 양상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일본어 습득 아동의 자료와 비교 언어적으로도 검토하였다.

먼저 아동과 양육자의 자발적 산출 자료 분석을 통해 증거성표지와 관련 어휘의 산출 시기와 빈도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경험을 표시하는 증거성표지 ‘네’와 관련 어휘 ‘보다’의 산출 시기가 다른 표지와 어휘에 비해 이르고 사용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 출처와 관련한 문법 표지와 어휘 표현은 직접 경험에서 간접 보고, 간접 추론의 순서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어머니의 입력 언어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아동의 산출 빈도와 높은 상관 및 예측력을 보여 어머니의 입력 언어가 아동의 산출 시기와 발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입력 언어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아동과 양육자의 산출 양상을 한국어 자료와 직접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입력 언어에서는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의 산출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어머니가 ‘보다’의 사용을 가장 빈번히 하였던 것에 비하여 일본 어머니는 한국어의 ‘대’에 해당하는 ‘tte’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입력 언어의 차이는 이후 3-6세경에 발달하는 정보 확실성 판단 능력에서 나타나는 일본 아동과 한국어 아동의 차이, 즉, 문법 표지에 따른 출처와 정보 확실성 판단은 일본 아동에게서 먼저 나타나고, 어휘에 따른 출처와 정보 확실성 판단은 한국 아동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발달 양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영은, 이화인, 장나영, 2010; Matsui, Yamamoto, & McCagg, 2006). 발달 초기에 일본 아동의 경우 문법 표지에 대한 노출이 어휘에 대한 노출보다 높고, 한국 아동의 경우는 정보 출처 어휘에 대한 노출이 증거성표지 노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출의 차이는 의미 이해 발달의 차이로 이어져 표지의 종류에 따라 두 언어에서 달리 나타나는 정보

확실성 판단 능력 발달의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입력 언어의 영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추가 연구 없이는 아직은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의 입력 언어에서는 두 언어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일본 아동과 한국 아동의 산출 양상 비교에서는 '보다'가 모두 산출 빈도가 다른 표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의 경우 한국 아동의 상대 빈도가 일본 아동 보다 높았기 때문에 위에 논의한 인과 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아동의 산출과 어머니의 산출이 서로 연관성을 보인 것은 아동의 산출 양상이 어머니의 산출을 유도하였거나 어머니와 아동이 집중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이 특정 표지나 어휘의 산출을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 언어 별로 한 명의 아동 자료에 주로 근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이 보편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산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산출 발달의 순서와 더불어 입력 언어의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산출의 양상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실험적 산출 및 의미 이해 발달 시기(Papafragou et al., 2007; 최영은, 장나영, 이화인, 2011, 이화인, 2012도 참조)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의 경우 2년 0개월에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이해는 3-4세에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영은, 장나영, 이화인, 2011). 타 언어에서 이루어진 증거성표지 습득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Aksu-Koc, Ogel-Balaban, & Alp, 2009, de Villiers et al., 2009). 그러나 언어 발달에서는 보통 이해가 산출에 선행한다. 예컨대, 아직 '엄마,

아빠'를 말하지 못하는 6개월 영아도 '엄마, 아빠'를 들으면 해당하는 사진을 적절하게 응시하는 반응을 보인다(Tincoff & Juszyk, 1999). 그런데 증거성표지의 경우 이와는 반대되는 발달 양상을 보인 것이다. 즉, 산출이 이해에 앞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Naigles(2002)에 따르면 산출과 이해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초기에 언어를 습득 할 때에 두 측면이 서로 분리되어 처리된다고 한다. 이해하거나 재인하는 것은 소리나 신호로부터 형성된 표상이 저장된 것을 평가하는 과정이고 산출은 이러한 표상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해와 산출은 달리 나타나고 항상 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출이 일어났다고 하여 반드시 이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이 어떤 표지를 산출하는 상황이 특징적인 것에 국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표지를 산출했다는 것이 그 표지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상 표지나 어휘가 쓰이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상황을 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산출은 이를 다 이해하고 있지 않고 일부만 알고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는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출과 이해 사이의 발달 차이도 이러한 차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출과 이해의 측정 차이에 의해 두 발달 양상이 표면적으로만 다르게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자발적 산출에 비해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실험 과제는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서 가능한 발화의 형태를 비교, 검토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주어진 상황 이해와 더불어 두 표지의 의미를 동시에 인출, 비교한 후 명시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제는 만 3-4세의 아동에게도

인지적 부하가 매우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기억 부하를 낮추도록 실험을 고안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자발적 상황에서 산출하는 것에 비해서 이와 같은 과제가 다른 인지적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아동의 이해 능력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암묵적 반응을 통해 아동의 어휘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과제의 개발을 통해 이해의 발달 정도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추후에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제한적 산출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아동 1의 자료는 자발적 산출 패턴의 관찰에 중요한 2-3세경의 자료를 매우 세밀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증거성표지 및 정보 출처 관련 어휘 산출을 본 연구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과 일본어와 비교 언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아동의 인식론적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정보 출처 관련 어휘와 증거성표지의 산출과 이해, 그리고 입력 언어가 이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접 경험 표지에 대한 발달이 간접 보고나 간접 추론 등에 앞서 출현하며 보다 일찍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거성표지나 관련 어휘 습득이 이후 정보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 확실성 비교, 판단 능력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애 (2002). 증거표지와 정보의 출원. 論文集, 33, 51-58.
- 김동욱 (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 국어학, 35, 171-197.
- 송경안, 이기갑 (2008). 언어유형론. 월인.
- 송재목 (2007).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형태론, 9, 1-23.
- 송재목 (2009). 기획논문 :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27-53.
- 송재목 (2011).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 比較文化研究, 22, 355-375.
- 이기갑 (2006). 한국어의 양태(Modality) 표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83.
- 이화인 (2012). 한국 아동의 증거성표지 발달 과정: 산출, 이해, 확실성 차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은, 이화인, 장나영 (2010). 정보 원천 표현에 따른 정보 확실성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09-124.
- 최영은, 장나영, 이화인 (2011). 증거성표지의 이해, 산출과 마음이론발달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93-108.
- 최영은, 장나영, 이화인 (2012). 학령전기 아동의 증언판별, 증거성표지 이해와 정보확실성 판단 능력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35-152.
- 최영은 & Kaufman, A. (2009). 정보 원천 표현에 대한 암묵적 이해의 발달. 한국발달심리학회 추계 학술심포지엄 발표 논문. 서울대학교.
- Aikhenval'd, A. Y. (2004). *Evidenti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ksu-Koc, A. (1988). *The acquisition of aspect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ksu-Koc, A., Ogel-Balaban, H., & Alp, E.

- (2009). Evidentials and source knowledge in turkish. *New Directions for Child & Adolescent Development*, 125, 13-28.
- Au, T. K., Dapretto, M., & Song, Y. K. (1994). Input vs. constraints: Early word acquisition 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5), 567-582.
- Aydin, C., & Ceci, S. J. (2009). Evidentiality and suggestibility: A new research venu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5, 79-93.
- Choi, S. & Gopnik, A. (1995). Early acquisition of verbs in Korean: A cross-linguistic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497-530
- Davis, C., Potts, C., & Speas, M. (2007). The Pragmatic Values of Evidential Sentences. *Proceedings of SALT 17*. Ithaca, NY: CLC Publications.
- de Villiers, J. G., Garfield, J., Gernet-Girard, H., Roeper, T., & Speas, M. (2009). Evidentials in tibetan: Acquisition, semantics, and cognitive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 Adolescent Development*, 125, 29-47.
- Gleitman, L. R. (1990). The structural sources of verb meanings. *Language acquisition*, 1(1), 3-55.
- Hoff, E. (2009). *Language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Jaswal, V. K., Croft, A. C., Setia, A. R., & Cole, C. A. (2010). Young children have a specific, highly robust bias to trust testimony. *Psychological Science*, 21, 1541-1547.
- Kim, M., McGregor, K. K., & Thompson, C. K. (2000). Early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Korean-speaking children: Language-general and language-specific pattern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225-254.
- Lee, C. (2009). Acquisition of Modality. In C. Lee, G. B. Simpson, & Y. Kim (eds.), *The Handbook of East Asian Psycholinguistics*, 3, pp. 187-22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Whinney, B. (2000). *The CHILDES Project: Tools for analyzing talk*. Third Ed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tsui, T., Yamamoto, T., & McCagg, P. (2006). On the role of language in children's early understanding of others as epistemic beings. *Cognitive Development*, 21(2), 158-173.
- Matsui, T., & Fitneva, S. A. (2009). Knowing how we know: Evidentiality and cognitive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 Adolescent Development*, 125, 1-11.
- Naigles, L.R. (2002) Form is easy, meaning is hard: Resolving a paradox in early child language. *Cognition*, 86, 157-199.
- Papafragou, A., Li, P., Choi, Y., & Han, C. H. (2007). Evidentiality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on*, 103, 253-299.
- Speas, P. (2004). Evidentiality, logophoricity and the syntactic representation of pragmatic features. *Lingua*, 114(3), 255-276.

Tardif, T. (1996). Nouns are not always learned before verbs: Evidence from Mandarin speakers' early vocabula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92-504.

Tincoff, R., & Jusczyk, P. W.W (1999). Some Beginnings of Word Comprehension in 6-Month-Olds. *Psychological Science*, 10(2), 172-175.

Willett, T. (1988).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1), 51-97.

---

1차 원고 접수: 2012.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05. 20

최종게재결정: 2012. 05. 21

# Developmental pattern of evidential markers and related verbs: analyses of natural production & input language

Youngon Choi, Hwah-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pattern of evidential markers and related verbs by examining the child's natural production and mother's input language. First, two audio-recorded corpora of Korean mother-child dyad's natural production were analyzed for frequency, age of emergence and productive use of evidential markers and related verbs. Also, the result of the corpora analyses was directly compared to one Japanese mother-child dyad's recorded speech corpus. The analyses of natural production revealed that children begin using direct experience marker/verb before hearsay or inference markers/verbs. Furthermore, mother's input pattern appeared to be aligned with the child's use of these markers/verb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cquisition of evidential markers and related verbs proceed from those that describe direct experience to hearsay or indirect inference or conjecture, implying that such order of acquisition might play a role in the later development of information certainty judgments on the basis of evidentiality.

*Keywords: evidential, evidential-related verbs, development of evidentiality, language acquisition, Korean*